

---

## 병 상 에 누 워 서

~~~~~서울의대 부속병원

임 혜 영

~~~~~

무엇부터 서두를 잡아야 할지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할 기억속을 그래도 한갓 내심의 욕구를 불러 일으키며 억지로 몇자 적어 보려고 한다. 4월 17일 아마 이날은 내 생애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나의 뇌리속에 살아 남아 생애 최악의 날로 기억되리라, 꿈에도조차 상상못한 그 끔찍한 교통사고로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신음해야 하는 제기를 마련해 준 인연 깊은 날이기에 말이다. 앗득 그것은 순간이었다. 감히 시간으로 셀수 없는 찰라였다. 자꾸만 무엇인가 초점을 잃어가는 나의 시야 속에 환상처럼 울부짖는 지극히 짧은 고통이 있었을뿐 나는 어느듯 의식을 잃고 있었다. 내가 탄 배스가 전복 된 것이다.

— ○ —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그 날 그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개인적인 집안 일도 있고 해서 그러나 짧은 여자만의 놀이여서 혹시 사고가 나

면 어쩌나 하는 책임상의 노파심이 나로 하여금 만사 제쳐 놓고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게 된 것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 집안 식구(기숙사 수간호원 일등)만의 호분한 모임이요, 휴일을 이용한 즐거운 휴식의 전당이었다(사고만 없었다면). 몇번 놀이는 갔지만, 우리들이 직접 주동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러기에 우리들 일등은 한껏 부른 가슴에 지루한 줄도 모르고 이야기에 꽃을 피우고 있었다. 신록사로 가던 길이었다. 배스로 계속 달리면 3시간이면 달는다고 했다. 이제 20분이면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이라니 거의 다 온 셈이다. 마침 배스는 그리 길지도 않은 조그만 다리를 막 걸느기 전이었다. 그 때 배스가 좌우로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였다. 운전사가 무엇이라고 다급히 증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거의 동시였다. 배스는 중심을 잃은채 원편으로 기우뚱하면서 전복된 것이다.

동시에 나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되었는지 나의 어깨에 무엇인가 닿은 촉감이 있었다. 나는 눈을 폈다. 그리고 스스로 기동해 보려고 다리에 힘을 주었다. 허나 이미 다리에 심한 고통이 있을뿐 나는 도저히 일어 설 수가 없었다.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지적할 수 없는 은몸에 아픔을 느끼며 다시 눈을 감았다. 여기 저기서는 신음하는 사람들의 전부였다. 나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고 젖먹든 힘을 다 하여 일어섰다. 허나 몇발자욱도 못 걸고 그 자리에 쓸어지고 말았다. 누구인가 사람들이 물러들기 시작했다. 미군들이 부서진 뺨스속으로 들어와서 한 사람씩 환자를 옮기기 시작했다. 나는 곧 중앙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구급차로 이곳 대학병실에 실려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고 또 배웠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 분개심까지 일으키는 아주 가슴아픈 것을 말해야 하겠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무리 인간애가 두터운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때도 미군들 보다는 한 역사의 조류 속에서 핏줄을 같이한 동포가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들이 교통사고로 여기 저기 쓸어져서 신음하는 것을 보고도 누구 하나 선뜻 구원의 손길을 뻗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멀리서 관망하고만 있었으니 이

에 반하여 미군들은 주일임에도 비상소집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구출작업에 입한 그 태도에 얼마나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중요시 하는가 하는데 나는 탄복했다. 마음으로부터 가슴 아파하는 한국식 사고 방식의 소산일까, 좋게 해석해서 표현 방식의 차이라고나 해 두자, 그러나 환자가 더군다나 교통사고의 경우는 특히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약 보다는 글히 손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 두어야 하겠다. 그리고 지금껏 불행중 다행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은 가는 도중에 그것도 인적이 드문 시골길이 아닌 미군 부대 앞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만약에 돌아오는 길에 어두운 길에서 사고가 났다면 아마 지금의 형편과는 그 양상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만한 것으로 끝 맺은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할찌 지금의 나로선 야릇한 기분일 뿐이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료들이 어서 빨리 일어날수 있도록 신의 가호가 특별히 있어 주기를 빌면서 지상을 통해 퇴물 끼친 병원 당국과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몸소 찾아오셔서 물심 양면으로 위로의 정을 나누어 주신 여터분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4月 17日 서울 의내부속병원 간호원들의 약유회날 일어난 교통사고 트 인해 부상을 받은 임혜영씨가 느낀 소감을 적어 보낸 글이다>